2024년 1월 21일 연중 제 3주일(Thjrd Sunday in Ordinary Time)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2 (천지 생기기 전)	513 (면병과 포도주)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제 1독서 | 요나 3,1-5.10

화답송 |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좌)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우)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좌)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7,29-3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14-20

영성체 후 묵상 |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느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의 삶에 초대되어 마음을 연 첫 번째 제자들은 구원과 신앙, 일치와 자비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과거의 삶에서 용기를 내어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준 위로와 용기는 제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Today's Gospel Reading <Mark 1:14-20>

After John had been arrested, Jesus went into Galilee.
There he proclaimed the Good News from God.
'The time has come' he said 'and the kingdom of God is close at hand.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As he was walking along by the Sea of Galilee
he saw Simon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 the lake – for they were fishermen.
And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into fishers of men.'
And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Going on a little further,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 John;
they too were in their boat, mending their nets.
He called them at once
and, leaving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men he employed,
they went after him.

<Short Reflection>

Jesus preaches the Kingdom of God in continuity with the preaching of John the Baptist. Like John, Jesus' announcement of the kingdom is a call to repentance. Yet Jesus' preaching is greater than John's. Jesus begins the time of fulfillment;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here. This will be demonstrated again and again, both in Jesus' words and in the actions that follow. Jesus' healings and forgiveness of sins are signs of the Kingdom of God that he announces in his teaching.

In today's Gospel, Jesus takes the initiative in calling his first disciples. It was more typical of first-century Jewish schools for students to seek out rabbis(teachers), asking to be their disciples. But Jesus breaks with this tradition and invites his disciples to learn from him. Jesus is said to have first called four fishermen– Simon, Andrew, James, and John. Simon and Andrew are brothers. Jesus promises that he will make them "fishers of men." James and John are also brothers.

Mark does not report Jesus' words of invitation to them, but he does report that they left their fishing immediately; their father, Zebedee, was left behind in the boat.

Mark's Gospel is told with a great sense of urgency and immediacy. Jesus is a person of action, and events occur in rapid succession. We see this in today's Gospel. Time is of the essence; the fishermen immediately put aside their livelihood to become Jesus' disciples. The Kingdom of God is here and now. The time of fulfillment is at hand. How might our lives be different if we more fully shared this sense of the immediacy of God's kingdom?

교황님과 함께하는 교리 교육 - '전구 기도 (轉求, Intercession Prayer)'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모른 체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인류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장식적인' 활동이 되고, 연극에서 보여지는 표면적인 태도가 되고, 혼자서만 하는은밀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성이 필요합니다. 곧, 하느님과의 관계에 할애된 공간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을 위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강복하시고, 우리를 쪼개시고, 우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손 안에서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현실도피가 아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고독과 침묵을 추구합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세상에서 물러나와 자신의 골방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만(마태 6,6 참조),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둡니다. 그 문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문이며, 전혀 기도하지 않지만 억눌린 부르짖음과 숨겨진 청원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문이며, 실수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열린 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줄 모르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들 혹은 기도하길 원하지 않거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과 목소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목소리는 우리의 중개를 통해 예수님과 아버지께 도달합니다. 긴 시간이든 30분 정도의 시간이든 고독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과 모두를 찾기 위해 세상 모든 것과 모두에게서 멀어집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과 죄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안테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청원하는 전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일치된 인간 마음의 특징이다"(2635항).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에게 자비로운 우리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비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과 하나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마음과의 조화 안에서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증오심으로 기도할 수 없고, 무관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사랑의 정신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척하거나, 스스로 기도하고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사람들을 가리거나 단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들 중의 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전구 기도를 바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전구 기도를 바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예컨대 부모, 교육자, 사목자, 공동체의 원장 (…) 등은 전구 기도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하느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느님의 불굴의 연민과 온유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나무의 잎사귀들입니다. 떨어진 잎사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큰 사랑을 떠올려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와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공지 사항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께로부터 온 편지>

"캔버라 한인성당에서 교리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수도생활에 대한 갈망을 느꼈고, 그 후 오랜 고민 끝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캔버라에서의 시간은 오랜 방황 끝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돌보아주셨던 교우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기워 갚으며 살겠습니다. 서원에 충실히 살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주시길 청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 중에 캔버라 공동체를 기억하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서울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 올림

1. 시드니 한인성당 - 온라인 그룹성경공부 안내

과목: 마르코, 요한, 루카복음
방법: 일주일에 1번, 1시간 30분 정도
인원: 봉사자 포함 4-5명
신청기간: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신청 및 문의: 이성희 안젤라 0433-050-333

2. 설 명절 주일미사 - '위령들을 위한 지향'

설 명정을 맞이하여 2월 11일(주일)에는 '조상님,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은인 등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주일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전 30분전부터 연도(짧은 연도)와 제대 앞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와 연도 때의 지향 신청 안내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성전 입구 테이블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세례명)을 기재 후 교무금함에 2월 4일(주일)까지 제출

| 미사 참례자 수 |

1/7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53명
1/14	유아·청소년: 15명	성인: 46명

| 우리들의 정성 | (1/13 ~ 1/19)

봉 헌 금	$287			
교 무 금	$280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21)	주정자 루치아, 김미현 보나
다음주 (1/28)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기도 지향 |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서울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21)	마르코반
다음주 (1/28)	마태오반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1.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